

보이지 않는 건축

충남내포 혁신 플랫폼

박종훈

전 (주)비컨아키텍트건축사사무소 대표

현 (주)건축사사무소 에스파스 디자인부문 부문장

개요

위치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889번지
용도	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	5,886m ²
건축면적	1,109.46m ²
연면적	2,939.87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높이	15.70m
건폐율	18.85%
용적률	45.16%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구조설계	김경민(제너럴 구조기술사사무소)
설계	박종훈
설계담당	박원동, 이바다, 윤성민, 박희영, 나지훈, 황지민
시공	이홍기(알엠에스 테크놀러지)
기계·전기설계	조권호(디이테크)
설계기간	2018. 7.~2019. 6.
시공기간	2019. 12.~2021. 5.
공사비	약 90억 원
건축주	충청남도



투명한 보이드 공간은
중심에서 외부로 다층적인 겹공간 구조를 가지게 되며
반복적으로 겹치는 공간들을 통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내부의 풍경을 서로 다채롭게 인지하게 한다.

실내공간이 드러나는 남측 전경

세밀한 공간적 결합을 통하여
개별 단위의 업무조직과 사무실이 단순하게 집한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융합을 위한 공동의 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 출입구와 남서측 전경





흥에공원으로 열린 1층 오픈 라운지와 카페공간



상 1층 오픈 라운지와 2층 오피스 라운지
하 3층 오피스 라운지



공유공간과 연계하며 공간을 확장시키는 아트리움



◎ 상단경관



◎ 하단경관



상 3층 옥상정원
하·좌 공원을 향해 돌출된 매스
하·우 1층 외부 사이공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공공건축은
내세워 보이기 좋은 큰 모뉴먼트가 아니라
지역의 삶과 사회의 일부로 융화되어 배경이 되는 것이다.

◎전경설



흥에공원을 마주한 북서측 전경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충청도에서는 내포가 가장 좋은 곳”이라고 하였다. 예로부터 서해 바다를 끈 이곳의 온화한 기후와 비옥한 토지는 홍성과 예산 지역의 너른 땅에 도청소재지인 내포 신도시를 품게 하였고, 두 지역의 첫 글자를 따서 이름 지은 홍예공원이 이 새로운 도시의 중심이 된다.

이 프로젝트는 홍예공원의 가장자리 한편에 지역사회의 혁신과 발전을 담당할 민·관 협치의 실험적인 공간을 만드는 일이었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종 리빙랩(Living Lab)과 혁신기관들, 사회적기업, 청년단체 등이 한데 모여 일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그 첫째 목표였다. 기왕이면 기존의 전형적인 업무공간을 탈피하고 새로운 형식의 창의적인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험이 가능한 공간적인 토대(platform)를 만들고자 하였다.

배치 계획

대지는 공원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 나가는 도로를 남측으로 두고 북측의 자미원 호수 방향으로 낮아지는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 공원의 진입부와 산책로를 가까이 두고 대지 주변으로 적당히 키가 큰 소나무 군락이 공원 내 산책로 주변으로 보기 좋게 들어선 곳이다. 대지의 서측 편으로 병풍처럼 펼쳐진 용봉산 자락의 산세가 인상적이고, 그로부터 흘러나온 기운이 자연스럽게 호수를 건너 도서관과 도청으로 이어진다. 건물의 계획은 이 흐름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덩어리를 세 개로 나누고, 그 사이사이를 비워 중정과 아트리움을 배치하였다. 투명한 보이드 공간은 중심에서 외부로 다층적인 겹공간 구조(multi layered space)를 가지게 되며, 반복적으로 겹친 공간들을 통하여 주변의 자연경관과 내부의 풍경을 서로 다채롭게 인지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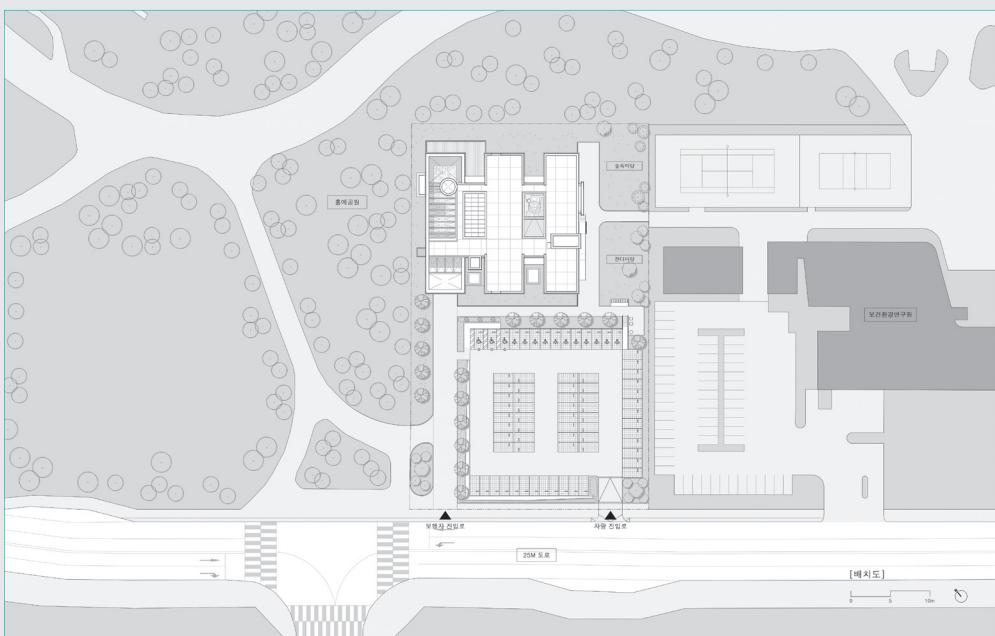
◎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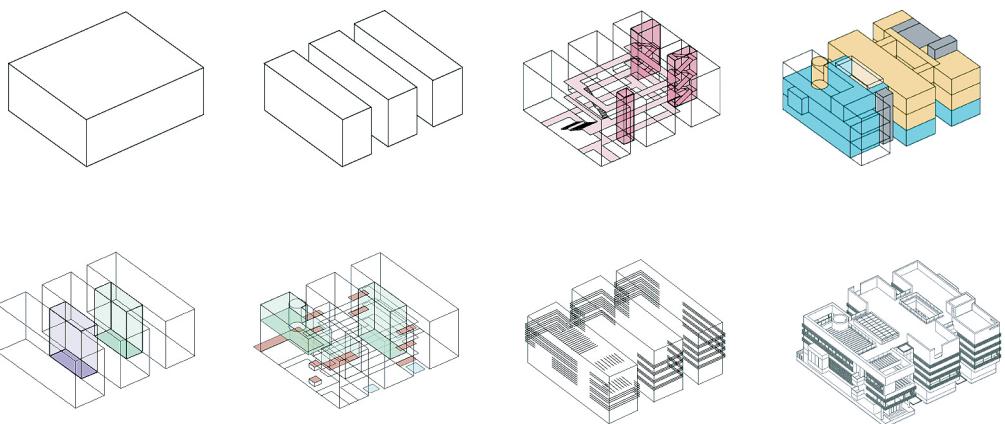
상 실내공간이 드러나는 남측 전경
하 주 출입구와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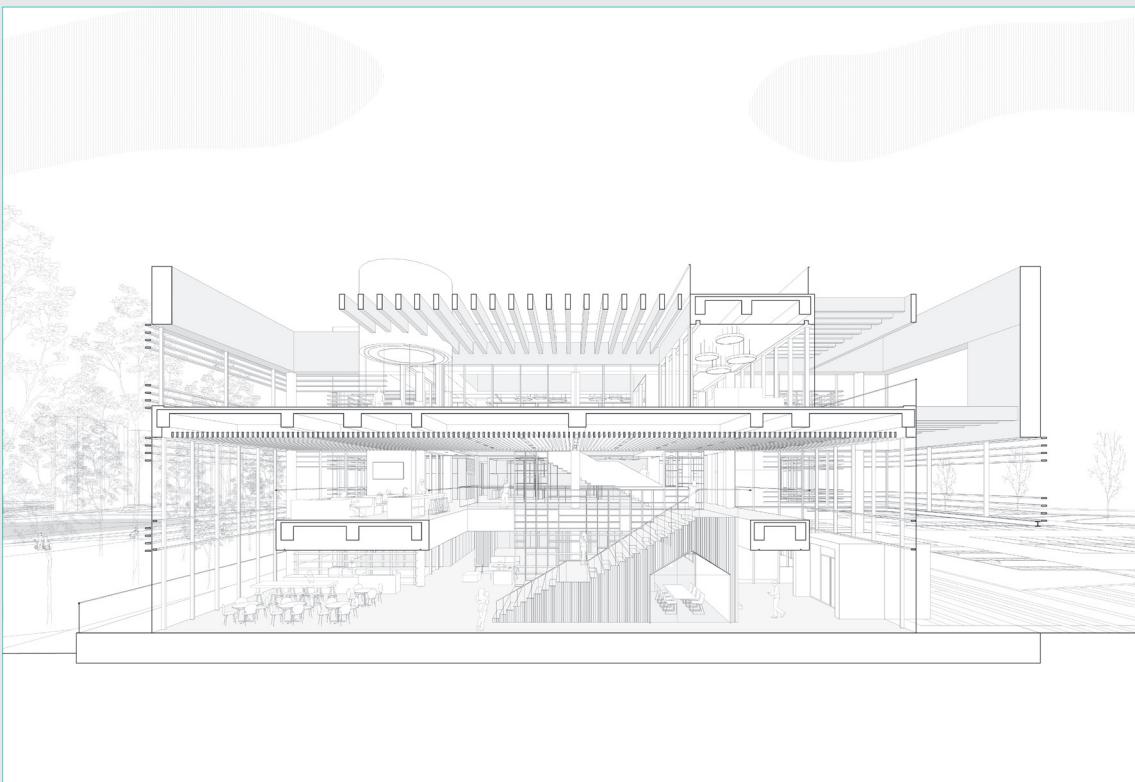
사이트 배치도



배치도



배치 다이어그램



단면 투시도



상 1층 오픈 라운지와 카페공간
중 1층 오픈 라운지와 2층 오피스 라운지
하 3층 오피스 라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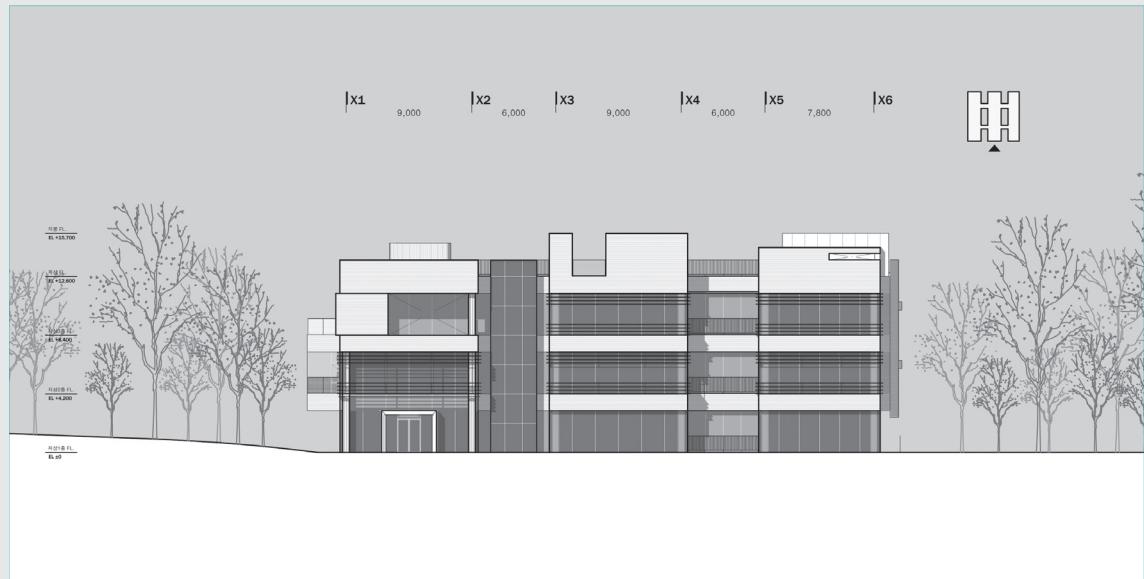
프로그램

이 건물의 1층은 모든 사람에게 열린 포용적인 공간으로 카페, 다목적실, 교육실 등을 배치하여 누구나 이 공간들을 대여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층과 3층은 각 입주 기관들의 열린 사무공간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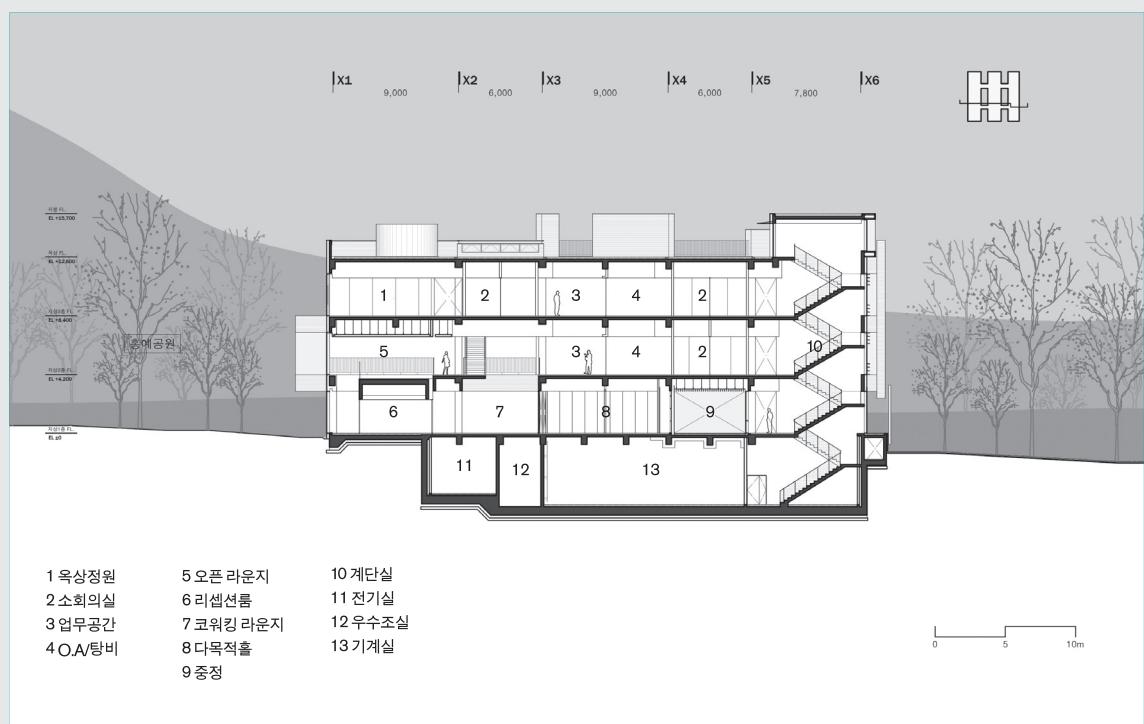
건물의 입주 기관들은 제각기 다른 규모의 인원 구성(2~12인)을 가질 뿐 아니라 인원의 변동이 갖고 업무형식 또한 다양하다. 이에 우리는 규격화된 업무공간의 최소 단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시선이 통하는 투명한 파티션으로 흐릿한 경계(Blurred Boundary)를 만들고 개별적인 업무공간 앞으로 자유롭게 공유가 가능한 회의 및 미팅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확장과 협업에 필요한 다양한 사무 형태가 수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집중 업무공간과 공유 업무공간, 공공 공유공간(교육·세미나·포럼·지원 공간)의 세밀한 공간적 결합을 통하여 개별 단위의 업무조직과 사무실이 단순하게 집합된 것이 아니라 혁신과 융합을 위한 공동의 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공공업무시설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건축적 산책로, 복도와 계단

홍예공원의 진입 산책로와 연결된 주출입 동선은 1층의 커뮤니티 라운지로 곧장 연결되며 오픈 라운지와 아트리움을 통해 건물 전체로 확장된다. 각 층의 연결 동선부는 평면의 중심에 ‘ㅁ’자의 형태로 아트리움과 중정을 뛰고 순환되는 구조로, 때때로 공용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하고 실용적인 유틸리티 공간(O.A/CANTEEN)으로 변모하기도 한다. 내부로 연결된 이 산책로(Promenade)는内外부의 다양한 공간과 자연환경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단순한 동선 연결의 기능을 넘어서 다양한 만남과 소통의 공간으로 작동한다.



일면도



단면도



① 아트리움, 중정

아트리움, 중정

건물의 중심부에 전체 층을 아우르는 아트리움과 이를 연결하는 계단을 만들고 개방된 복도와 공용업무공간, 라운지, 회의실 등이 이 주변을 감싸도록 하여 건물 전체의 중심공간으로 기능하도록 하였다. 중정은 빛과 바람을 받아들이고 업무공간 및 화장실이나 문서 창고, 계단 등의 서비스 영역에 이르는 통로 영역까지도 자연채광을 확보하여 건물 내의 모든 곳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한다.



상 공유공간과 연계하며
하 공간을 확장시키는 아트리움
하 1층 외부 사이공간

매스, 투명성, 재료마감

건물의 정면과 배면은 매스의 분절된 사이공간을 통해 주변의 경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였고, 좌우의 입면은 반대로 외부로 돌출시킨 라운지 공간이나 발코니 등의 건축요소를 통해 비례감과 긴장감을 갖도록 조정하였다. 3층의 옥상정원은 보와 가벽 알루미늄 루버로 둘러싸여 보이지 않는 투명한 볼륨으로 건물의 형태를 구성하며, 풍경을 바라보며 쉴 수 있는 별도의 외부 휴게 공간을 제공한다. 건물의 내부는 외부와 같은 자연소재의 재료를 일관되게 적용하였다. 특히 천장은 부분적으로 별도의 마감 없이 설비와 구조를 노출하고 투명한 파티션들과 더불어 내부 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여 전반적으로 밝고 따뜻한 느낌의 건물이 되도록 하였다. 또한 외부를 감싸는 로이복충유리는 그 특유의 반사 및 투과 효과를 통해 낮에는 건물의 볼륨으로 인지되며 주변의 녹음을 경계 없이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밤이 되면 이윽고 인공과 자연의 경계를 허물고 서서히 존재가 사라지며 내부 공간을 밖으로 환하게 드러내어 어두워진 공원의 산책로를 비춘다.

보이지 않는 건축

우리는 이 건축의 존재감이 너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랐다. 정면인 도로변에서는 명확하게 인지되어야 하겠지만 배면이자 또 다른 정면인 공원의 산책길에서는 될 수 있는 한 투명하게 조금 덜 드러나기를 희망하였다. 사람들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공공건축은 내세워 보이기 좋은 큰 모뉴먼트가 아니라 지역의 삶과 사회의 일부로 융화되어 배경이 되는 것이다. 건축이 아닌 공동체의 삶의 가치를 빛나게 하는 ‘보이되 보이지 않는 건축’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간직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본다.

사람이 만드는 건축

이 프로젝트를 다시 떠올려 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사람이다. 우리의 제안을 순수하게 좋아해 주시고 지역의 좋은 본보기를 만드는 역할로 끝까지 책임감을 가져 주기를 당부하신 도지사님부터, 프로젝트의 초기 기획부터 열의를 다하고 고민을 아끼지 않았던 여러분이 계셨던 덕에 우리도 그 대열에 끼어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즐거운 여정이 되었다. 시공 초기에 유난히 신경전을 벌였던 현장 소장님도 시간이 지나면서 신뢰가 쌓였고 마지막에는 모두가 웃으며 끝나게 된 행복한 프로젝트가 되었다. 준공 이후에 비어 있던 자리에 들어오게 된 장애인 단체의 카페테리아 협의까지 기분 좋게 마치고, 마침내 초기에 그려놓은 내부 풍경과 거의 동일하게 현장이 완성된 것은 모두가 함께한 사람들 덕분이다. 공공건축을 만드는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중요하다. 그들이 희망이다.

◎
[인문]



상 3층 옥상정원
중 공원을 향해 돌출된 매스
하 홍예공원을 마주한 북서측 전경